

## 감시와 위장\*

- 최인훈의 「크리스마스캐럴」론 -

강헌국\*\*

### 국문초록

최인훈 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강박 증상을 주목할 만하다. 강박 증상은 「크리스마스캐럴」의 비틀린 대화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그 소설에서 아버지와 '나'는 기성의 담론들을 차용하면서 대화를 전개한다. 그들의 대화는 차용된 담론들 간의 부조화로 인해 엉뚱하고 기이한 외양을 띠게 된다. 그들이 제 목소리가 아닌 타자들의 목소리로 대화를 하는 까닭은 감시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이다. 그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기성의 담론들을 차용하여 대화를 위장한다. 발언에 대한 책임을 대화에 차용된 담론들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강박적으로 대화를 위장하도록 하는 피해의식은 미시적으로 작용하는 정치권력과 관련된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대화마저 감시의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은 사적 영역까지 침투한 정치권력의 미시적 작용을 실감하게 한다. 이 소설에서 부자간의 위장된 대화는 정치권력에 의해 자행된 말의 억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최인훈은 동시대의 각종 담론들을 패러디하는 방법으로 당대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고자 한 것이다. 최인훈은 그러한 현실을 초래한 근원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근대화를 지목한다. 서구적 특수성을 세계적 보편성으로 오해하여 추종한 한국의 근대화는 크리스마스 풍속으로 상징되는 매우 기이하고 왜곡된 현실을 빚어냈다는 것이다. 이 소설의 강

\*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박 증상은 바로 그러한 근대화를 가져온 근원적 오류를 거듭 소환한다.

주제어 : 감시, 강박 증상, 권력, 담론, 억압, 최인훈, 크리스마스캐럴

## 1. 서론

최인훈의 소설 도처에서 강박증상이 감지된다.<sup>1)</sup> 「회색인」에서 독고준은 한국전쟁 중에 W시에서 겪은 여름을 거듭 회상한다. 그 여름의 어느 날 독고준은 공습을 피해 대피한 방공호에서 문득 한 여인의 품에 안기게 된다. 방공호의 어둠과 열기 속에서 독고준은 살갓에 닿는 여인의 감촉으로 충격과 흥분에 휩싸인다. 「회색인」 전체를 통해 독고준은 그 기억을 강박적으로 되풀이한다. 「서유기」에서 독고준은 W시로 가기 위해 석왕사역에서 열차를 타지만 번번이 석왕사역으로 되돌아온다. 그 소설은 석왕사역과 W시 사이를 맴도는 독고준의 여행을 열개로 삼는다. 「가면고」의 다문고는 영원의 얼굴을 소유하려는 집착 때문에 산 사람의 얼굴을 벗겨서 써 보는 짓을 되풀이하고 「하늘의 다리」의 준구는 눈앞에 종종 나타나는 환각적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다. 「웃음소리」에서는 환청을 통해 주인공의 강박적 심리가 표현된다. 확성기와 라디오, 전화기 등과 같은 매체가 강박적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구운몽」의 후반부에서는 정부군 방송과 혁명군 방송이 공중의 확성기를 통해 번갈아 울려나온다. 그 방송들은 혁명이 실패로 끝나서 반란군의 수괴로 쫓기게 된 독고민의 처지를 서술한다. 「구운몽」과 유

1) 최인훈 소설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강박 증상이라는 점은 김영찬에 의해 이미 언급된 바 있다. 김영찬, 「불안한 주체와 근대」, 『1960년대 소설의 근대성과 주체』, 상허학회 편, 깊은샘, 2004, 48-49쪽.

사한 상황은 「서유기」의 끝부분에도 나온다. 독고준은 마침내 W시에 도착하여 추억을 떠올리며 시가지를 배회한다. W시의 확성기들은 긴급 소식을 전하듯 독고준을 간첩이나 정신병자로 규정하는 방송을 계속한다. 「주석의 소리」와 「총독의 소리」도 방송 매체를 서술 수단으로 채택하여 강박적 효과를 구현한 사례들이다. 최인훈 소설에서 강박 증상은 서사를 구축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서술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강박 증상은 선행 연구에서 ‘반복’이라는 이름으로 고찰되었다. 최인훈 소설에서 반복과 관련한 주요 국면들이 검토되었으며<sup>2)</sup> 최인훈 소설의 서사들이 반복에 의해 상관관계를 형성한다는 논의도 있었다.<sup>3)</sup> 반복의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도 수행되어 최인훈 소설에서 반복은 타자의 오인에서 비롯되지만 타자의 오인은 주체에게 향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4)</sup>

프로이트에 따르면 강박적 반복이나 집착은 신경증의 일종이다. 환자는 그 증상을 통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유년기의 어떤 체험을 재현한다. 물론 환자는 강박 증상이 유년기의 원체험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프로이트가 ‘최초의 장면’이라고 명명한 원체험은 체험 당시에는 환자에게 그 의미가 이해되지 못한 채 트라우마성 사건으로 무의식에 억압되고 훗날 모종의 계기에 의해 압축과 전치를 거쳐 재현된다. 환자는 강박 증상을 통해 원체험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자신도 모르게 되풀이한다. 따라서 강박 증상은 근원에 대한 탐색과 그 의미에 대한 질문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최인훈 소설에 나타나는 강박 증상도 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그 강박 증상이 향하는 근원은 한국전쟁과 식민지시대, 그리고 더 멀게는 조선시대로 소급된다.

2) 이주라, 「최인훈 소설의 반복 기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2003.

3) 최애순, 「최인훈 소설의 반복 구조 연구」, 『현대소설연구』 26, 2006.

4) 정영훈, 「최인훈 소설에서의 반복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35, 2007.

강박신경증이 현재의 어떤 계기에 의해 무의식에 억압된 원체험을 소환하는 것처럼 최인훈 소설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강박 증상도 현실적 계기를 지닌다. 지금-여기에서 진행되는 삶의 부정성이 그러한 삶을 빚은 근원에 대해 강박적으로 탐색하고 질문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강박 증상이 최인훈 소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사실은 「크리스마스 캐럴」의 비틀린 대화들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다.

본 논문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대상으로 최인훈 소설의 강박 증상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선택한 까닭은 그 소설에 대한 연구가 작가의 다른 소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어서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sup>5)</sup> 특히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자간의 대화는 아직 제대로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는 통행금지와 외래풍습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면서도 부자간의 대화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부차적으로 다룬다. 문학 작품 안에는 간혹 연구자의 해석적 시도에 완강하게 저항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부자간의 대화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동안 그 부분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부자간의 대화가 지닌 작품 내적 가치와 의미는 「크리스마스 캐

5) 그러한 연구 현황과 관련한 김성렬의 언급을 인용한다.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은 매우 난해한 작품이다. …(중략)… 특히 캐럴 연작에 드러난 부자간의 대화는 난삽하기 짝이 없고 말장난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 해석의 의의가 있을까 싶은 회의조차 들게 할 정도이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그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에 대한 접근은 매우 드물다.” 김성렬,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구」, 『국제어문』 42집, 2008, 370-371쪽. 이 논문 이전에 「크리스마스 캐럴」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평론과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현, 「풍속적 인간 : 「크리스마스 캐럴」을 중심으로」,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 사회와 윤리 - 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1991; 이동하, 「통행금지 시대의 문학 -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 『소설과 사상』 1995년 12월호; 양윤모, 「서구 문화의 수용과 혼란에 대한 연구-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구」, 『우리어문연구』 14집, 1999.

텔」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 마땅히 해명되어야 한다. 더욱이 「크리스마스 캐럴」의 엉뚱하고 부자연스러운 대화가 최인훈의 언어 패러디를 대표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 2. 차용된 담론들

「크리스마스 캐럴 1」은 작중 인물들 간의 기이한 대화 장면으로 시작한다. ‘나’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사랑방으로 건너가지만 아버지는 곁에 앉은 딸 옥이에게 “애, 내가 너희 오래비를 불렀던가?”라고 묻는다. 아버지가 좀 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하는데 그 말을 들었음이 분명한 옥이와 ‘나’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옥이는 “아무튼 저렇게 오셨으니깐, 부르신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하고 ‘나’는 “존재는 본질에...”라며 당장의 상황과 별 관련이 없는 논설을 펼치려 한다. 그 후로도 대화는 부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질문과 대답이 어긋나고 과장스런 말이 구사되어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한 독자의 상식적인 기대를 배반한다.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 중 4를 제외한 나머지 네 편은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부자간의 대화들을 다룬다. 그 대화들은 공교롭게도 연작 1에 서처럼 아버지가 ‘나’를 호명하면서 시작된다. 아버지는 “철아, 이리 좀 건너오너라.”(연작 2)와 “철아.”(연작 3)와 “철이니?”(연작 5)로 ‘나’를 부른다. 아버지의 호명과 ‘나’의 반응은 연작마다 다른 양상을 띤다. 전술한 대로 연작 1에서 아버지는 ‘나’를 불러놓고도 그 사실을 스스로 부인한다. 아버지는 연작 2에서도 그의 부름을 받은 ‘나’가 방문 앞에서 “아버님 부르셨습니까?”라고 두 번을 물어도 묵묵부답이다. ‘나’가 돌아서려 하자 아버지는 비로소 “불렀다. 이리 들어오너라.”라고 대답한다.

그에 반해 연작 3에서 ‘나’는 아버지의 부름을 두 번 들은 후에 대답하고 연작 5에서는 아버지가 “철이니?”를 네 번 반복하도록 ‘나’는 대답하지 않고 버틴다. 연작 5에서 ‘나’는 아버지의 네 번째 호명에 대답하는 대신 웃음을 짓는다. 이처럼 부자간의 대화는 매번 기묘한 방식으로 시작된다. 연작 1과 2에서 아버지는 ‘나’를 불러놓고도 부른 사실을 부인하거나 잊은 척하며 연작 3과 5에서 ‘나’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대답을 늦추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호명과 반응에 대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역전되는 셈이다. 연작마다 아버지가 ‘나’를 부르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대화의 도입부마다 한 인물이 의외의 태도로 다른 인물을 다소간 곤혹스럽게 만들도록 한 것은 의도성이 다분한 설정이다. 이 소설에서 부자간의 대화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화로 보기에는 매우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일상의 맥락에 비일상적인 대화를 위치시킴으로써 일종의 ‘낯설게 하기’의 효과가 빚어진 것이다.<sup>6)</sup> 그로써 배경 맥락과 불일치하는 대화의 소통 방식 자체가 환기된다. ‘나’에 대한 아버지의 호명은 그러한 대화의 개시를 알리는 전조로서 기능한다. 연작 1을 읽고 난 독자는 그 이후의 연작들에서 아버지가 ‘나’를 호명할 때마다 엉뚱하고 기이한 대화의 시작을 예감하게 된다. 아울러 대화의 도입부는 부자가 대화를 전개하기에 앞서 벌이는 탐색 과정과 같다. 아버지는 ‘나’를 부른 사실을 부인하거나 잊은 척하면서 대화에 대한 ‘나’의 의지를 저울질한다. ‘나’ 역시 아버지의 호명에 늦게 대답하거나 아예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아버지가 능동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아버지와 ‘나’는 그러한 탐색 과정을 거쳐 대화에 진입함으로써 인간끼리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결코 수월치 않다는 사실을 상

6) 이와 유사한 견해가 이동하에 의해 이미 피력된 바 있다. 그는 연작 1편의 대화 장면을 인용하면서 “일상적인 장면 혹은 상황 위에 비일상성의 너울이 두껍게 씌워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동하, 앞의 글, 247쪽.

정적으로 보여준다. 대화에 진입한 이후에도 아버지와 ‘나’는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한다. 그 대화는 대개 부자연스럽고 어색하여 대화의 소통 기능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아버지와 ‘나’는 대화로 소통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통 장애를 겪는다. 대화가 소통의 왜곡과 단절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대화는 피할 수 없는 소통 수단이긴 하되 매우 불편한 소통 수단이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들이 것처럼 불편한 수단을 통해 의사를 교환하고 상호 이해에 이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아버지와 ‘나’가 소통 장애를 겪는 주된 이유는 그들 각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 데 있다. 그들은 기성의 담론들을 다양하게 차용하여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① “아버님 소자는,”

잠깐 끊었다가

“소자가 불민한 탓이옵니다.”

“무엇이 불민하단 말이나?”

“소자는 항상 지척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도 마음 흡족하실 일을 못 해드리웁고 행동거지가 슬기롭지 못하여...”<sup>7)</sup>

② “아버님, 말씀이 좀 불온해지십니다.”

“불온하다니? 애가 너는 나를 사상적으로 몰 생각이나?”

“사상적으로라뇨?”

“그럼 불온하단 건 무슨 소리야!”

아버님은 와들와들 떨었다.<sup>8)</sup>

7)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 가면고 - 최인훈 문학전집 6』, 문학과지성사, 1976, 29쪽.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할 경우 『전집 6』으로 표기하고 쪽수만 적기로 한다.

8) 『전집 6』, 14쪽.

- ③ “내가 좀 과했나 보다. 문제를 이 편지에 줍히기로 하자. 이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가결됐다.”<sup>9)</sup>

④ “첫째로 친일파들은 괴로워도 마땅한 사람들이었던 반면에 통일이 되어  
 서 괴로울 사람들 가운데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  
 습니다. 둘째로 해방을 위해서는 준비가 있었습시다만 통일을 위해서는 아  
 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중략)… 신금단이는 바로 그런 불쌍한 희생잡니  
 다. 이혼아홉 마리의 양들에게 몰려 희생의 낭떠러지에 처박힌 한 마리의  
 양입니다.”<sup>10)</sup>

- ⑤ 우리는 그 환상이 너무나 고맙고 아름다워서 한참 동안 회화를 끊고 그  
 환상에 대해 경의를 나타내기로 하였다.  
 “그만, 환상 바로 됐지? 좀더 필요하겠니?”<sup>11)</sup>

아버지와 ‘나’의 대화는 일상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배경과는  
 이질적인 언어와 화법이 대화에 사용된다. 일상 대화에 차용된 비일상적  
 인 담론은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인상을 자아낸다. ①에서 ‘나’는 사극의  
 대사를 흉내 내지만 일상에서 발화된 그 대사는 사극에서와 같은 비장  
 함을 지니지 못한다.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소설의 도처에서 목도된  
 다. ‘나’는 대화 도중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대의 수준을 평소보다 높  
 이고 아버지는 위엄을 갖추어 화답하는 격이다. 심지어 ‘나’는 무릎을 꿇고  
 방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가 하면 흐느끼는 시늉을 하기도 한다. 우스꽝  
 스러운 그 장면들을 통해 사극의 담론 형식이 회화되고 전통 예법이 시  
 효를 다한 세태가 암시된다. ②는 사상과 관련한 심문 장면을 재현한다.

9) 『전집 6』, 73쪽.

10) 『전집 6』, 41-42쪽.

11) 『전집 6』, 126쪽.



한국의 크리스마스 풍속을 화제로 삼는 부자간의 대화에 이어지는 ②에서 아버지를 불온하다고 하는 ‘나’의 말은 그 동안 진행된 문맥과 관련이 없음에도 위력이 대단하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던 아버지는 금세 위축되고 공포에 떠난다. 사상성을 심문하는 말이 현실에서 발휘하는 억압적 효과가 ②에서 선명하게 확인된다. 그 말은 전후 사정을 불문하고 상대방을 단숨에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③에서는 의회의 의사 진행 과정이 대화의 방식으로 채택된다. 입법 기관의 언어는 부자간의 대화에 쓰임으로써 본래의 권위를 상실하고 희화된다. ④는 정치적 연설에서 유래한 발언이다. ‘나’는 정치인이 아닌데도 일상의 대화에서 정치인처럼 연설한다. ‘나’의 발언을 통해 정치적 연설이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런 만큼 특별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환기되며 특정 화법의 특권적 점유가 형성하는 배타적 권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⑤는 공식행사의 의례에 쓰이는 언어를 대화에 끌어들이는 경우이다. 국가나 국가원수, 부대장 등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와 관련된 언어가 아버지와 ‘나’가 달을 바라보며 품는 환상에 사용됨으로써 그 언어는 본래의 엄숙함을 상실하고 다소 서정적인 분위기를 띠게 된다. 위에 인용된 사례 외에도 「크리스마스 캐럴」에는 여러 형식의 담론들이 나온다. 그 담론들은 정치 토론에서 말장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그러써 이 소설은 동시대의 담론 형식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된다. “소설은 다양한 사회적 발언유형과 그 밑에서 꽃피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인적 발언에 의존하여 그 모든 주제들, 즉 그 안에서 묘사되고 표현되는 사물세계와 관념세계의 전체를 교향(交響, Orchestration)시킨다.”<sup>12)</sup>고 한다. 다양한 담론 유형들의 교차를 통해 소설은 다성적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기성의 담론들을 적극 차용함으로써 다성적 속성

12) 미하일 바흐친,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창작과비평사, 1988, 68-69쪽.

을 의도적으로 극대화 한다. 이 소설에서 대화의 당사자는 아버지와 ‘나’ 두 사람이지만 그들의 대화에는 타자들의 목소리가 개입한다. 그들은 타자들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그 목소리들로 인해 그들은 작중 인물로서 성격적 일관성을 획득하지 못한다. 전통적인 소설 문법에 따르면 작중 인물은 성격 면에서 일관성을 지녀야 하며 그러자면 작중 인물의 발화들이 일관성 있게 조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아버지와 ‘나’는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타자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인해 일관된 성격을 부여받지 못한다. 그들은 현실적 존재로서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소설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신분이나 직업은 명시되지 않으며 그들이 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도 소개되지 않는다. 낮에도 집에 있는 그들은 대화를 위해 설정된 존재들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들의 현실적 정체성보다 그들의 대화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대화는 동시대의 담론들을 재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 담론들은 그것들이 본래 위치했던 맥락에서 그들의 대화로 전치됨으로써 반성적으로 고찰되거나 희화되고 더 나아가 그 허구성이 폭로되기도 한다. 그들이 대화중에 겪는 소통장애는 그 담론들의 문제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제 목소리가 아닌 타자들의 목소리로 대화함으로써 소통장애를 겪는다. 그 소통장애는 대화에 차용된 담론들이 소통 수단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을 입증한다. 그들이 대화중에 동음이의어나 사자성어, 속담 등을 이용하여 벌이는 말장난은 동시대의 담론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내포한다. 정치적 연설 같은 공식 담론들과 말장난이 수준면에서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 3. 위장된 대화

아버지와 ‘나’의 대화는 기성의 담론들을 다양하게 차용함으로써 부자연스럽고 기묘한 외양을 띠게 된다. 그들은 대화에 차용된 담론들로 인해 소통장애를 겪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소통장애를 겪으면서까지 제 목소리가 아닌 타자들의 목소리로 발언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를 파악하자면 다음의 장면들을 주목해야 한다.

① 아버님과 옥이는 약 일 분간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그것은 쓰인바 박장대소(拍掌大笑)란 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박수 소리가 너무 크다는 뜻을 주의를 주었다. 그들은 곧 충고를 받아들여, 웃음과 손뼉 치기를 멈추었다.<sup>13)</sup>

② “진정하세요. 너무 흥분하였어요.”

“오나 내가 좀 지나쳤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 선 오동나무가 몸을 흔들리는 기척이 알릴만큼 조용했다.<sup>14)</sup>

③ “네 말을 들으면 북한 정부하구 우리 정부를 동격으로 보고 하는 것 같으니, 그 점을 분명히 해다구.”

나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버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하자면 밀고를 하신다거나...”<sup>15)</sup>

13) 『전집 6』, 10쪽.

14) 『전집 6』, 15쪽.

15) 『전집 6』, 41쪽.

④ 그때 잘그럭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아버님을 보았다. 아, 아버님 손에 들었던 찻잔이 땅에 떨어져 깨어지고 질퍽하게 차가 방바닥에 흘러 있지 않은가. 나는 얼이 홀어져 일어서려 하는데 아버님이 손을 들었다.

“떠들지 말아라.”

아버님은 어두운 낮빛을 지으시며 무슨 기척을 살피시는 것이었다. 나는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쭉 끼쳤다.

“쉬어.”

아버지는 나의 살갓에 소름이 끼치는 소리를 나무라듯 다시 손을 저었다.<sup>16)</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아버지와 ‘나’는 대화를 하는 중에 간간이 바깥의 기척에 주의를 기울인다. 방안에 있는 그들은 대화 내용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꺼려한다. ①에서 아버지와 옥이는 ‘나’의 주의를 듣고 박수와 웃음을 멈춘다. 소리의 크기에 대한 ‘나’의 주의를 외부에 대한 경계를 내포한다. 아버지와 옥이도 ‘나’의 주의를 따름으로써 방안의 소리가 밖에 들리는 것을 경계한다. 아버지와 옥이가 ‘박장대소’를 실천하기 위해 손뼉을 치며 웃는다고 서술한 부분도 그들의 경계심과 관련된 다.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을 한자성어의 재현으로 전가시킨 데는 행동의 진의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②에서 아버지와 ‘나’는 대화를 중단하고 방 바깥의 동태를 살핀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들은 신경을 곤두세운다. ③에서는 ‘밀고’라는 단어가 주목된다. 부자 관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단어가 ‘나’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올 정도로 대화의 누설에 대한 ‘나’의 피해의식은 심각하다. ④에서 아버지는 밖에서 난 소리에 경악한다. 누군가 밖에서 방안의 대화를 엿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아버지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

16) 『전집 6』, 50-51쪽.

다. 이처럼 인용문들은 공통적으로 아버지와 ‘나’가 감시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그 피해의식은 부자간의 자유로운 대화를 억압하여 그들로 하여금 타자들의 목소리로 대화하도록 한다. 따라서 그들이 다양하게 차용하는 기성의 담론들은 대화를 위장하는 기능을 한다. 아버지와 ‘나’는 기성의 담론들로 위장된 대화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발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차용된 담론들에 발화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연작 5에서는 대화에 대한 위장이 기성의 담론들을 차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더 극단적으로 진행된다. 전집 판본에서 이십여 쪽을 차지하는 그 대화는 한 마디로 ‘그들만의 대화’여서 독자가 그 대화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화의 당사자들끼리 공유하는 참조 문맥에 대한 독자의 접근이 철저하게 차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대화의 초입에서 아버지는 “네 의향은 어떠니?”라고 묻고 ‘나’는 “제 의향이래야 별것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는데 이처럼 정보를 충분히 명시하지 않는 발화는 참조 문맥이 제공되지 않으면 독자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참조 문맥을 공유한 아버지와 ‘나’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 의향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지만 그러한 문맥에서 소외된 독자는 그 ‘무엇’을 전혀 알 길이 없다. 주어와 목적어를 지시대명사로 표기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불충분하게 구현한 문장들도 연작 5의 대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 문장들의 서술어는 주로 ‘의심하다’ ‘말다’ ‘알다’ ‘되다’의 활용형이며 서술어에 걸리는 부사어로는 ‘그렇게’ ‘이리’ ‘저리’가 빈번하게 사용된다. 연작 5에 명시된 시간적 배경이 ‘59년 여름, 어느 날 밤’부터 5·16 이후까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화자의 우려나 책임, 인식, 판단 등을 내포하는 그 문장들이 모종의 현실과 관련된다는 추측도 해볼 만하다.<sup>17)</sup> 게다가 연작 5에는 4·19 때 죽은 학생들이 의식을 벌이는 장면과 1961년 5월 16일 새벽

에 군인들이 한강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그 정도의 단서들만으로는 부자간의 대화가 은폐하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불가능하다. 구성의 면에서도 그 단서들과 부자간의 대화를 매개하는 작품 내적 요소는 부재한다. 참조 문맥이 없이 제시된 대화는 판독불능의 암호문과 다를 바 없어서 막연한 추측 이상으로 해석이 진전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나’는 기성의 담론들을 차용할 뿐 아니라 정보가 누락된 발화로 대화를 위장한다. 감시에 대한 피해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위장된 대화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성 담론들의 차용과 정보가 누락된 발화들로 인해 그들의 대화는 소통 장애를 빚는다. 발화자가 자신의 뜻대로 진술하기를 주저하거나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면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대화는 비틀리고 곁돌며 대화 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교감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아버지와 ‘나’에게 피해의식을 갖도록 하는 감시의 실체는 이 소설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다. 인기척과 바람 소리, 없어진 찻술 등을 통해 암시될 뿐이다. 아버지와 ‘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연작 3에서 식구들의 찻술이 사라진 사건에 대한 ‘나’의 당혹감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정치적 함의를 지닌 말로 표현되기도

17) 이 기회에 서사의 면에서 독립적인 연작 4를 제외한 연작 네 편의 시간적 배경에 대해 부연해두고자 한다. 우선 연속된 세 해의 크리스마스를 다루는 연작 1과 2와 3의 시간적 배경은 연작 2에 언급된 신금단 사건을 기준으로 확정이 가능하다. 신금단 사건이 있던 해가 1964년이므로 시간적으로 그 전후에 위치하는 연작 1과 3은 각각 1963년과 1965년에 해당된다. 연작 5는 작중에 명시된 대로 ‘59년 여름, 어느 날 밤’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네 편의 연작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면 5-1-2-3이 된다. 그렇다면 연작 5에서 ‘나’가 앓는 겨드랑이의 ‘파마늘’ 통증이 연작 1,2,3에서도 계속 되는 셈인데 문제는 ‘나’의 통증에 대한 언급이 연작 1,2,3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품의 현 상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를 판단한다면 네 편의 연작은 서사의 면에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각 연작을 시추에이션 드라마의 한 회분처럼 볼 수 있다.

한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미미하고도 사소한 변화를 감시의 조짐으로 여기는 피해의식을 이해하려면 이 소설과 작가가 처한 현실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소설을 이루는 다섯 편의 연작들은 모두 5·16 이후인 1963년부터 1966년까지 문예지들을 통해 차례로 발표되었다. 그 연작들을 발표하던 시기에 최인훈이 작가로서 체감한 표현의 자유가 5·16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광장」을 발표하면서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새 공화국에 사는 작가의 보람을 느낍니다.”<sup>18)</sup>라고 술회하던 최인훈에게 5·16 이후는 ‘보람’이 좌절과 환멸로 바뀌는 시기이다. 군정을 거쳐 반공을 제 1국시로 내세운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작가의 창작 의지는 위축된다. 「광장」을 가능케 한 입장과 방법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최인훈은 현실의 소설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을 전개한다. 「크리스마스 캐럴」은 그러한 실험이 거둔 성과들 중 하나이다. 이 소설에서 최인훈은 말에 대한 억압을 지목하면서 사적 영역까지 침투한 정치권력의 실상을 비판한다. 정치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민 사찰이 개인의 말에 감시와 처벌의 공포가 따라 붙도록 함으로써 말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거나 주장을 설파하는 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말이 고통을 부를 수 있다는 피해의식은 말에 대한 자기 검열을 낳는다. 그 자기검열이 아버지와 ‘나’가 의식하는 감시의 실체이다. 따라서 감시의 기관은 그들의 외부가 아닌 그들의 정신 속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 왜곡된 현실은 그들로 하여금 감시를 보편적인 삶의 조건으로 여기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위장된 대화를 하면서도 다른 누군가가 엿들을까 두려워하고 ‘나’는 아버지가 ‘나’의 생각을 물을 때마다 “글쎄요”를 연발한다. 감시에 대한 공포로 그들의 대화는 강박적 성격을 지닌다.

18) 최인훈, 「서문」, 『광장 / 구운몽 - 최인훈문학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76, 17쪽.

#### 4. 크리스마스와 한국의 근대

동시대의 담론들을 강박적으로 재현하면서 전개되는 아버지와 ‘나’의 대화에서 크리스마스가 주요 화제로 등장한다. 연작 1편에서 옥이는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외박을 하려 한다.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되었던 해방 이후 한국의 현실에서 크리스마스이브는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몇 날 중 하루였기 때문에 그 해제는 사회의 억압과 통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를 지녔다.”<sup>19)</sup> 그런데 통행금지가 해제된 크리스마스이브의 혼란과 무질서는 자유의 소중한 가치를 환기하기보다는 억압과 통제를 합리화하는 구실을 한다. 통행금지의 해제가 도리어 통행금지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그 제도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거둔다.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바에야 차라리 억압과 통제를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통행금지의 해제를 통해 조장되는 것이다. 연작 4에서 크리스마스이브는 “하느님을 구실로 암습이 재미보기”<sup>20)</sup>를 하는 밤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연작 1에서 아버지는 그 밤에 외박하려는 옥이를 만류함으로써 통행금지를 긍정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옥이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외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버지는 딸의 성적 방종을 우려하여 통행금지의 해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옥이의 주장이나 아버지의 우려는 크리스마스의 본뜻과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다. 크리스마스를 외박이나 성적 방종과 등치시키는 논리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것처럼 비논리적인 관계는 크리스마스와 통행금지의 해제를 임의로 연결시킨 정치권력의 조치에서 기인한다. 정치권력은 크리스마스이브에 통행금지를 해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행금지의 상시적인 운용이 필요하

19) 양윤모, 앞의 글, 129쪽.

20) 『전집 6』, 103쪽.



다는 인식을 조장한다. 서구에서 유래한 크리스마스가 한국의 억압적인 현실과 맞물려 기형적인 풍속으로 변질된 것이다. 연작 1의 끝 장면은 한국의 크리스마스 풍속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옥이는 아버지와 성가대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며 트위스트를 춘다. 성가대가 서구의 기독교를 대표한다면 아버지는 한국의 전통적 사고방식을 대신한다. 한국의 크리스마스 풍속은 그 양자 사이에서 추는 트위스트와 같다는 것이 그 기묘한 장면이 의미하는 바이다. 옥이가 성가대를 배경으로 트위스트를 추는 동안 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의 그 동작은 기형적인 풍속에 대한 인정과 체념을 함축한다.

아버지와 ‘나’의 대화는 크리스마스에 이어 신금단 사건과 행운의 편지를 화제로 삼는다. 강박신경증의 메커니즘대로라면 그 화제들은 감시의 공포와 함께 강박 증상을 구성하는 현실적 계기들이다. 아버지와 ‘나’로 하여금 대화를 위장하도록 하는 강박 증상의 원인은 그 현실적 계기들보다 더 근본적인 데에 있다. 연작 4에서 그 원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 연작 4는 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온 한 인물의 경험과 생각을 전한다. R이라는 유럽의 도시로 유학을 간 그는 “학문은 코즈머폴리턴 한 것이며 관념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온 동방의 이방인 학생”<sup>21)</sup>이다. 유학을 가기 전까지 그는 학문적 수준이 보편성의 위계에 의해 차등화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의 유럽 유학은 보편성의 위계에서 유럽이 동양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이다. 유럽을 추수해야 할 모형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서구 제국주의의 오리엔탈리즘을 복사한 것이다. “근대 서구의 문화를 특권적인 규범으로 삼는 입장은 ‘보편주의’ 또는 ‘인간주의’를 내걸면서 인종이나 민족의 서열, 열등한(하위의) 문화의 예속, 나아가 스스로를 대표(표상)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대표해 주

21) 『전집 6』, 89쪽.

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복종을 동반해 왔다.”<sup>22)</sup> 유럽은 그에게 학문적 헤게모니의 중심이며 그의 유학은 그 중심을 향한 선망과 동경을 실천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기료장수를 닮은 현지 대학 교수들의 모습을 보며 당황한다. 교수들은 거칠고 굵은 손마디를 가진 신기료장수처럼 학문을 다룬다. 그들에게 “학문은 무슨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 손가락으로 주무르고 이기고 꺾매는, 아교풀이고 암말의 허벅지 안가죽이고 쇠뿔이고 구두창이었다.”<sup>23)</sup> 프로테스탄티즘 같은 서구의 정신적 기풍도 “구가(舊家)의 가헌(家憲)처럼 질기고 고집스러운 결국 교수들의 손가락 마디나 구두창과 같은 물건이었다.”<sup>24)</sup> 서구의 근대가 오랜 전통과 구체적인 경험에 뿌리를 두고 성립되었는데 반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는 서구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다. 고유한 전통을 망각한 채 서구의 근대를 무분별하게 추종한 한국의 근대화는 서구적 특수성을 세계적 보편성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수호성녀 이야기도 그러한 오류와 관련된다. 항상 성경책을 품고 다녀서 수호성녀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그와 한 아파트에 산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독실한 신앙심 때문에 이십 년 넘도록 성경책을 품에서 놓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는 할머니의 신앙과 교수들의 학문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이 신기료장수처럼 학문을 다루듯 할머니는 수전노처럼 신앙을 굵어모은다. 할머니에게 신앙이란 초월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녀가 손에 항상 품고 있는 낡은 성경책처럼 구체적인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의 성경책이 신앙과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 뒤에 밝혀진다. 할머니는 임종의 자리에서 젊은 시절 사별한 연인을 잊지 않으려고 연인의 가족으로 장정한 성경책을 지니고 있었노라고 고백한다. 그가 유학

22)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경덕·임성모 역, 도서출판 이산, 1997, 174쪽.

23) 『전집 6』, 88쪽.

24) 『전집 6』, 89쪽.

시절 현지에서 사귀 친구 H가 그 사실을 한국에 돌아와 있는 그에게 편지로 전한다. H는 편지에서 할머니의 고백이 서구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그의 지론을 재고하게 할 거라고 한다. 그러나 H의 기대와 달리 그 편지는 그의 지론을 바꾸지 못한다. 할머니에게 사랑은 보편적인 관념이 아니라 손에 움켜쥐어야 할 한 장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평소 지론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뿐이다. 크리스마스이브의 소란 속에서 그는 구체적인 경험에 뿌리를 둔 서구문화를 보편적인 것으로 오해한 한국의 현실을 본다. 한국은 서구의 특수성을 추종해야 할 보편성으로 착각함으로써 왜곡된 방향으로 근대화를 진행한 것이다. 이 소설의 강박 증상은 바로 그러한 근대화를 가져온 근원적 오류를 거듭 소환한다.

## 5. 결론

『크리스마스캐럴』에서 부자간의 대화는 감시에 대한 피해 의식으로 인해 강박적으로 전개된다. 아버지와 ‘나’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기성의 담론들을 차용하여 대화를 위장한다. 발언에 대한 책임을 대화에 차용된 담론들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로 하여금 강박적으로 대화를 위장하도록 하는 피해의식은 미시적으로 작용하는 정치권력과 관련된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대화마저 감시의 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은 사적 영역까지 침투한 정치권력의 미시적 작용을 실감하게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말의 흐름은 한 사회의 건강성을 가늠케 하는 척도이며 사회가 병들수록 말의 흐름은 원활치 못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부자간의 위장된 대화는 정치권력에 의해 자행된 말의 억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최인훈은 동시대의 각종 담론들을 패러디하는 방법으로 당대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고자 한 것이다. 최인훈은 그러한 현실을 초래한 근

원으로 파행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근대화를 지목한다. 서구적 특수성을 세계적 보편성으로 오해하여 추종한 한국의 근대화는 크리스마스 풍속으로 상징되는 매우 기이하고 왜곡된 현실이 빚어냈다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캐럴」은 5·16 이후의 현실에 대한 최인훈의 좌절과 환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최인훈이 희망의 끈을 아예 놓아버린 것은 아니다. 최인훈은 다소 막연하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연작 5의 ‘나’를 통해 개진한다. 연작 5에서 ‘나’가 겪는 신체상의 통증도 부자간의 위장된 대화처럼 감시에 대한 피해의식이 빚은 강박증상의 다른 면모이다. ‘나’는 밤마다 겨드랑이를 쑤셔대는 통증을 잊고자 통행금지가 발령 중인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다. 금제를 넘어선 자유로운 행보를 통해 ‘나’는 한시적으로 겨드랑이의 통증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작중에서 ‘파마늘’로 명명된 그 통증이 통행금지로 상징되는 억압적 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통행금지 시간에 비로소 살아나는 서울의 관능을 감지하고 4·19때 죽은 학생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벌이는 의식을 목격하기도 한다. 겉으로는 차갑게 보이던 서울은 그 내부에 뜨거운 기운을 품고 있다. ‘나’는 그 기운에서 강박 증상을 치유할 수 있는 희망을 본다. 밤거리의 산책이 겨드랑이의 통증을 날개로 변모시키는 기적을 가져온 것이다. 비록 5·16으로 고통의 시간이 연장되고 있지만 겨드랑이의 날개가 있는 한 ‘나’는 그 희망을 계속 지탱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경덕·임성모 역, 도서출판 이산, 1997.
- 김성렬,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연구」, 『국제어문』 42집, 2008.
- 김영찬, 『1960년대 소설의 근대성과 주체』, 상허학회 편, 깊은샘, 2004.
- 김 현, 『현대한국문학의 이론 / 사회와 윤리 - 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1991.
- 양윤모, 「서구 문화의 수용과 혼란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14집, 1999.
- 이동하, 「통행금지 시대의 문학」, 『소설과 사상』 1995년 12월호.
- 이주라, 「최인훈 소설의 반복 기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2003.
- 정영훈, 「최인훈 소설에서의 반복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35, 2007.
- 최애순, 「최인훈 소설의 반복 구조 연구」, 『현대소설연구』 26, 2006.
- 최인훈, 『광장 / 구운몽 - 최인훈 문학전집 1』, 문학과지성사, 1976.
- \_\_\_\_\_, 『크리스마스 캐럴 / 가면고 - 최인훈 문학전집 6』, 문학과지성사, 1976.
- 미하일 바흐친,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창작과비평사, 1988.

Abstract

Surveillance and Disguise

- A Study on Choi In-hun' *Christmas Carols* -

Kang, Heonguk\*

In this study I attempt to explain the meaning of conversations in Choi In-hun's *Christmas carols*. Those conversations which are proceeded by father and son, two main characters in the novel, are so absurd that readers can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m. It's because many discursive forms of their times are brought in the conversations between father and son. In other words, they wouldn't like to speak in their own voices but through the others' voices. The reason that they avoid to speak in their own voices is caused by the fear of surveillance. They disguise their conversations in the way that get pre-existing discursive forms in order to avert surveillance. So they intend to transfer responsibility of utterance to those discursive forms. The fear by which they obsessively disguise their conversations is related to the political power of their times. The microscopic operation of political power penetrating into private sphere evolves the situation in which the conversations in family are suffer from the fear of surveillance. The disguised conversations between father and son in *Christmas carols* disclose the repression of the speech by the political power. Choi In-hun uses the method of parody to various discursive forms of his times with intention to

---

\* Korea Univ.

expose the absurd realities. He points to the modernization of Korea as the origin of such realities. He insists that Korea misunderstood the speciality of West as global universality and followed West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absurd realities which is symbolized the custom of Korean Christmas in this novel could be resulted from such an original mistake.

Key words : Choi In-hun, *Christmas carols*, modernization, political power, surveillance

❖ 강한국

전화 : 010-3388-6920

전자우편 : narat1@korea.ac.kr

원고 접수일 : 2008.07.21

심사 완료일 : 2008.09.07

게재 결정일 : 2008.09.11